



Welcome to Hong Kong!  
**출입국 서비스가  
더 빠르고,  
더 편해졌습니다!**

12월부터 한국·홍콩 간 상호 자동출입국심사제가 시행됩니다.  
이제 대면심사 없이 무인 자동심사대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홍콩을 방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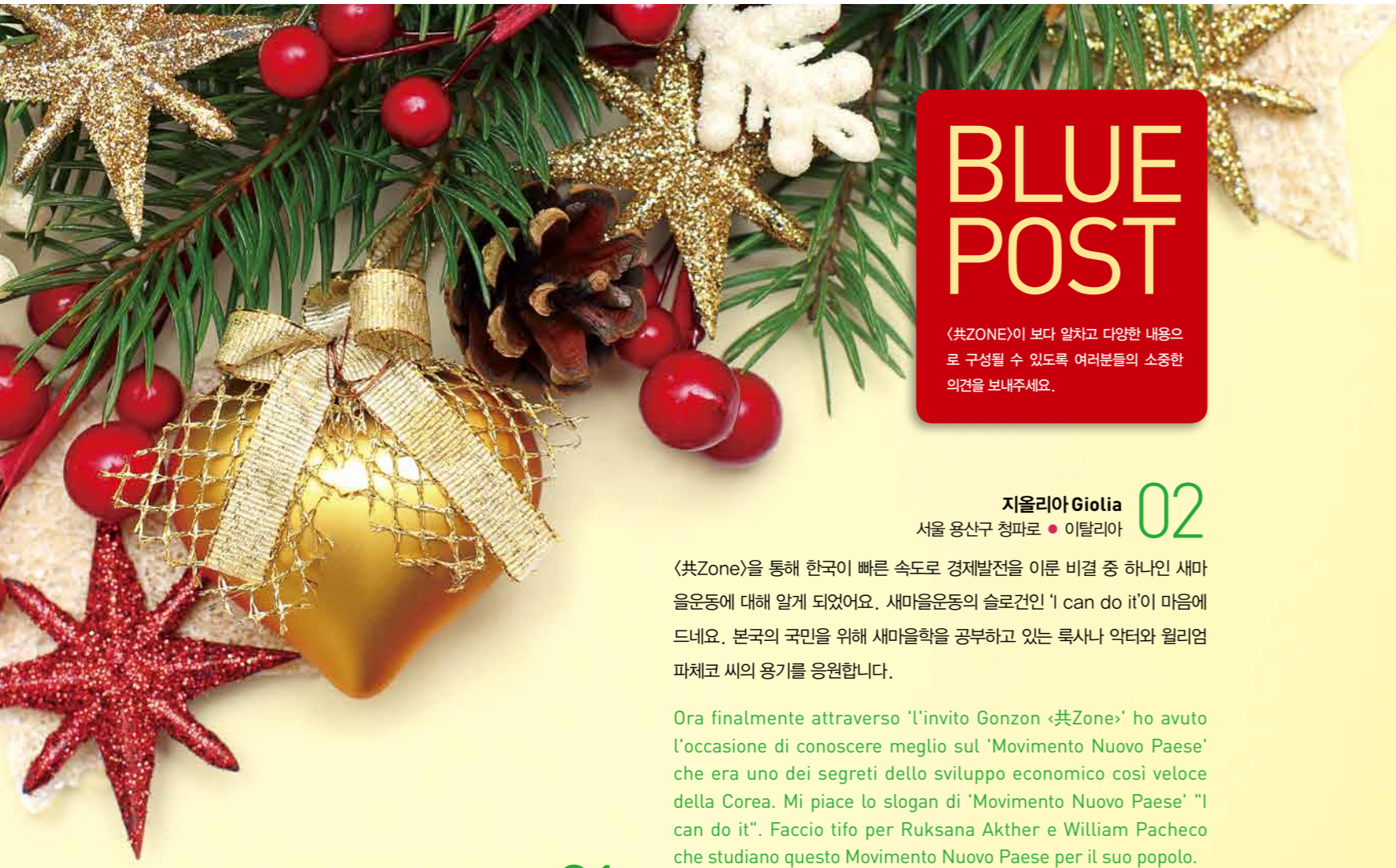
한국·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사전 등록 절차 안내

- 1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 등록(17세 이상 국민)
- 2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http://www.immd.gov.hk>) 접속
- 3 홍콩 E-Channel 신청 및 신청확인서 출력
- 4 6개월 이내 홍콩 공항 방문(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 5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ses.go.kr](http://www.ses.go.kr)를 참조







#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지올리아 Giolia 02

서울 용산구 청파로 • 이탈리아

<共Zone>을 통해 한국이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룬 비결 중 하나인 새마을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인 'I can do it'이 마음에 드네요. 본국의 국민을 위해 새마을학을 공부하고 있는 룩사나 악터와 윌리엄 파체코 씨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Ora finalmente attraverso 'l'invito Gonzon <共Zone>' ho avuto l'occasione di conoscere meglio sul 'Movimento Nuovo Paese' che era uno dei segreti dello sviluppo economico così veloce della Corea. Mi piace lo slogan di 'Movimento Nuovo Paese' "I can do it". Faccio tifo per Ruksana Akther e William Pacheco che studiano questo Movimento Nuovo Paese per il suo popolo.

## 네이마르 Neymar 03

부산 영도구 대평동 • 브라질

어린 시절, 브라질에서 태권도를 배웠던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이에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전통무예인 태권도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니, 취지가 매우 훌륭합니다. 태권도는 예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줄 겁니다. 자랑스런 태권소년, 소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Durante a infância, aprendi Tae Kwon Do no Brasil e por isso estou estudando na Coreia atualmente. A intenção do programa de educação no qual crianças de famílias multiculturais possam aprender Tae Kwon Do de graça é muito boa. Tae Kwon Do é um esporte que trata etiqueta e educação com muita importância e por isso ajuda no desenvolvimento saudável da mente e corpo das crianças. Espero ativa participação dos orgulhosos garotos e garotas do Tae Kwon Do.

## 브록 라딘스키 Broke Radinsky 04

경기 광주시 목동 • 캐나다

서울 여행도 좋지만 여유가 있다면 꼭 지방 여행을 떠나세요. 지역마다 색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이죠. 군산은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라 더 꼼꼼하게 <共Zone>에서 소개한 정보를 체크해 뒀습니다.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일본풍 건물도 볼 수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군산항을 바라보며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답니다! 앞으로도 알찬 여행 정보 부탁 드려요.

The trip to Seoul was great but if you have time and money to spare, you must take a trip to the provinces. It's because there are outlandish things to see and enjoy in each region. I haven't been to Gunsan yet, I make meticulous notes of information introduced in <共Zone>. Being able to see Japanese buildings which are hard to find in Korea and feeling the sea breeze as you overlook the Gunsan Port on a bicycle! Please carry useful travel information in the future.

## 왕채연 Wang Chae Yeon 05

전남 여수시 광무동 • 한국

가끔 TV에서 외국인들이 스스럼없이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을 볼 때면 '외국인의 입맛에도 막걸리가 맛있을까?'하고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번 'K-Food 특공대'가 제 궁금증을 해결해 줬네요. '파전엔 막걸리가 딱'이란 기사 제목처럼 역시 함께 먹어야 맛있죠! 이번 호에서도 제 마음을 확 사로잡은 <共Zone>, 고마워요.

When I watched foreigners sometimes drink makgeolli on TV without hesitation, I was curious on how makgeolli would taste to foreigners. However, this 'K-Food Special Force' resolved my curiosity. Just like the title of the article 'Makgeolli, perfect for pajeon', they always go well together! <共Zone> that totally grabbed my heart this edition, thank you.

### COVER STORY

#### 고운 마음씨를 쏟은 우리는 친구!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정(情)이 좋다는 두 사람, 결혼이주여성 두 분이 겨울호 표지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린 남매와 남편을 살뜰히 보살피면서도 봉사활동 소식이 있으면 '수퍼우먼'이 되어 달려나간다는 헬렌(Hellen E Levin, 고테말라) 씨,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배로 카진다고 말하는 데비(Deby Natalia, 인도네시아) 씨, 마음씨 곱고,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그녀들이 우리 친구이자 이웃이 되었다니 한겨울 추위도 잠시 포근해집니다.



## CONTENTS

- 02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04 공존의窓 캐나다의 '산타클로스 퍼레이드'
- 05 Editor's Message 추후 교체 예정 추후 교체 예정

###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다름의 이름으로, 큰 행복을 만든다
- 08 THEME SITE 제3회 한마음걷기축제
- 12 THEME GUIDE 자통출입국심사 서비스 안내
- 16 THEME INTERVIEW 물방울 나눔회 와타나베 미카 & 권암파이 씨
- 20 THEME REVIEW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 수업 현장
- 22 나의 취업성공기 매경닷컴 플랫폼개발국 유신 씨
- 24 Dream 충전소 다문화가정 2세 김유리 양
- 26 GO! 골목산책 열정과 청춘의 바로미터, 서울 흥대
- 31 한국생활가이드 운전면허 취득 절차
- 32 K-Food 특공대 다문화가족의 팔죽 맛 체험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홍콩 증권관리자급 교환연수단
- 38 WOW 출입국탐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 42 친절 바이러스 고수들의 친절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44 출입국 Hot-Line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만남
- 46 출입국 News 4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출입국 Q&A 자신신고 및 출국 절차 하
- 51 Thank you Letter 고마운 사회복지사님께

<共ZONE>을 앱북에서도 만나보세요!



ios용 Android용



2013 WINTER NO.32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계간 <共ZONE> 2013 겨울호 통권 제32호 비매물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3년 12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베브파트너스 Tel.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02-462-8980





종교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한 해를 마무리 하고 다가올 한 해를 기다리는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 캐나다의 토론토에서는 1913년부터 시작하여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산타클로스 퍼레이드(Santa Claus Parade)'를 일년에 단 한 번, 11월에 진행합니다. 각자 개성 있게 분장한 3,000여 명의 퍼레이드 참가자들은 그룹을 지어 토론토의 도심을 돌며 따뜻한 연말의 정을 나눕니다. 연말에 이웃간의 정을 나누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크리스마스같이, 내·외국인 모두가 함께 따뜻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앞장서서 만들어갑니다.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웃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 사랑으로 품고

##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  
〈共Zone〉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무근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2014년 새해를 함께 시작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연말이면 불우이웃 성금을 모으는 구세군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독거노인을 찾는 고미운 분들이 꽤 많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통해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학생, 결혼 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재한외국인들이 자조모임을 만들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끼리 서로 서로 돕고 있다는 따뜻한 소식들이 들려와 가슴이 더욱 뭉클하였습니다. 이제 재한외국인은 더 이상 타인이 아닌 정을 나누고, 신뢰를 주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2014 갑오(甲午)년에는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무한한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에는 원하는 소원 모두 이루시고 기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한 무 근**

## Embracing with Love Giving back in Trust



●  
Greetings to all readers!  
My name is Han Moo-geun, newly appointed 5th Commissioner of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It is with great excitement that I welcome the New Year together with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As the year comes to a close, we hear the bells of the Salvation Army ringing in the streets, as many hands reach out to elderly who are alone and most in need. Albeit a small act, here at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e too are joining our efforts for the 'Helping Hands Initiative' to reach out to those around us who are in difficult times. What is encouraging to hear is that many foreigners here in Korea—study-abroad students, marriage immigrants, foreign workers and others—have joined this movement by creating volunteer groups of their own and on their own initiative. Such news of compassion and generosity around us is truly what keeps us warm during this wintry season.  
As this demonstrates, foreigners in Korea are no longer "foreigners," but partners and companions with whom we share our affection and trust. With this belief,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welcome the year 2014, with the determination and readiness to reach out to those around us with compassion, in shared trust in each other.  
Dear valued readers, on behalf of KIS, I wish each and every one of you a happy 2014 and for all your yearnings to come true this year.  
Thank you. ☺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Han Moo-geun**



다름의 이름으로, 큰 행복을 만들다

BARAVO

MULTICULTURE!

MAKE A

BIG HAPPY!



01 THEME SITE '제3회 한마음걷기축제' 현장 02 THEME GUIDE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SES) 안내  
 03 THEME INTERVIEW 물방울 나눔회 와타나베 미카 & 권암파이 씨 04 THEME SCENE 다문화 수업 현장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패러다임이 새로워지고 있다. 수혜를 받기만 하던 데서 벗어나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강점으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그 역량을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재한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다. '제3회 한마음걷기축제'에 참석해 한국인과 걸음 속도를 맞추던 재한외국인의 발걸음, 이웃에게 전할 김치를 맛있게 버무리던 '물방울 나눔회' 결혼이주여성들의 손 맛, 아이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교육을 위해 교육강사로 직접 나선 재한외국인의 용기까지. 이제, 다름의 이름은 대한민국이 더 큰 희망과 미래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BRAVO, MULTICULTURE!  
MAKE A BIG HAPPY!**

THEME SITE 2013 제3회 한마음걷기축제

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 한마음걷기축제

(일) 09:00~14:00 상암동 월드컵공원(평화의 광장)



## 걷고 화합하고, 배려하고 나누며~ 다 함께 걸어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차림을 한 많은 사람들이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 모였다. 오늘은 재한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하는 '제3회 한마음걷기축제'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 유독 상쾌하고 선선했던 가을바람을 벗삼아 모두가 한마음으로 걷고, 화합했던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글 안재민 사진 서찬우

가을별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10월 13일,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사단법인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제3회 한마음 걷기축제(이하 걷기축제)'가 열렸다. 이날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 열린 걷기축제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돕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은 3천여 명 외에도 추가로 현장접수가 가능했다. 덕분에 행사에 참여한 인원이 크게 늘어 행사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실감케 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걷기축제는 법무부를 비롯한 교육과 학기술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상담에 나섰으며, 국민과 외국인이 진정으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모습이었다.

### 준비 운동도 힘차게!

출발 전, 주최측에서는 번호표 뿐만 아니라 허리띠와 기념배지, 기념 스카프와 음료와 간식 등 기념품을 나눠주어 참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번 축제에는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과 일반 시민 등 3천여 명이 참석하여 걷기축제의 현장을 함께하였다. 축제를 시작하기 전, 건강사회운동본부 이수구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수성 전 총리의 환영사와 이자스민 의원의 축사, 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의원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또한 사전프로그램에서는 '제1회 다문화·사회통합 기초질서지킴이 공모전'에서 수상한 수상자들의 시상식이 열렸다. 건강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법





**“한국의 가을을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인하대학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듣고 있어요. 그곳에서 걷기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족과 주말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죠. 한국에 와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와 아이들과 제대로 대화할 시간이 없었는데, 알록달록 예쁘게 물든 단풍을 보며 가족의 손을 꼭 잡고 가을을 제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무부와 안전행정부가 후원한 이 공모전은 포스터와 시, 글짓기 등 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을 진행하였으며, 대상인 법무부장관상을 포함해 최우수, 우수, 장려상 등의 시상이 이어졌다. 수상작들은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년기부터 생활 속 기초질서를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 들이기를 독려하며, 건강한 사회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작품들로 선정되었다. 많은 이들이 수상작들을 보고 공감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진열되었다.

본격적인 출발 전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걸을 수 있도록 몸을 푸는 시간도 진행되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진행자의 구호에 따라 준비운동 동작을 따라 하며 저마다 활기차게 걷기축제를 준비했다. 다 함께 출발선으로 이동한 후 함께 카운트를 세며 걷기축제가 시작했음을 큰 소리로 알렸다.

**기록 보다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출발을 알리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걷기축제가 시작되었다.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유독 반가운 날이었다. 경쟁하고 기록을 재는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가을 날씨와 풍경을 만끽하며 연신 카메라에 모습을 담기 바빴다.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가족, 친구들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꽤나 소중한 듯 보였다.

이번 걷기축제 코스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을 잇는 둘레길 6.5km로 빨강과 노랑계 변해 버린 단풍을 구경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코스였다. 걷기대회 참가자들은 짧은 가을을 만끽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며 걸으면서 하늘



수구카니바삼 (요르단 35)

공원과 노을공원의 가을정취에 흠뻑 젖어 들었다. 1시간 이내에서 2시간에 이르기까지 참가자들의 완주기록은 제각각이었지만 내·외국인이 함께 걸으며 화합하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만은 같았다.

**출입국 관련 문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를 비롯한 서울, 양주, 수원 등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또한 걷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재한외국인을 위한 고충상담을 실시했다. 출입국 직원들은 전용 부스에서 재한외국인들에게 체류업무, 국적, 사증, 사회통합 등 출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상담해 주고 맞춤형 해결책도 제시해주었다. 많은 재한외국인들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부스를 찾아와 고충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

한편 축제장 곳곳에서 한국어와 모국어가 능통한 결혼이주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무료 건강검진 부스에서 외국인들을 도와 서비스를 안내하던 팜티쓰안(28) 씨는 뿌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올해로 한국에 온 지 5년째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한국어를 쓰는 것이 낯설지 않지만 처음에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죠. 당시의 저와 같은 자국민들을 돕고 싶어서 자원봉사를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이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화합하고 나누는 기쁨의 장**

걷기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광장 한 켠에서는 무료 건강검진, 문화체험 부스, 체험존 등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서 지원한 무료 건강검진 코너에서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과, 한방과, 약국 등을 운영하여 건강검진 내용에 맞는 상담과 치료를 진행하였다. 또한 체험존에서는 내·외국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단체 줄넘기, 스피드 스텝스 등이 진행되었고, 캐리커처 그리기, 고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행사장 한쪽에는 몽골,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과 악기, 장식품 등이 전시되었다. 전통의상을 입은 각국의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해 직접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자국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11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걷기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빅토리아(41) 씨도 감회를 밝혔다. 그녀는 “축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제 모국인 우즈베키스탄에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니 더 기쁘네요”라면서 “축제에 오면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각국의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여할 때마다 늘 두근거립니다”라며 다음 해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

**“유용한 정보 가득, 다음에도 꼭 올래요!”**

남편이 한국사무소로 발령을 받아 한국에 오게 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비자 문제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오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고충 상담서비스를 이용했어요. 현재 수원에 살고 있는데, 수원사무소도 소개해 주셔서 나중에 들러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겁니다. 한국인 친구가 알려주어 오늘 축제에 참석했는데 고국으로 편지도 보내고 캐리커처도 그려주는 등 재미있는 행사가 많아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있어요. 내년에는 남편과 함께 올래요.

엘리자 (러시아 21)







#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세요

Experience the convenient  
and smooth immigration via Smart Entry Service!

여행객들의 신속한 입출국 심사를 도와주는 자동출입국심사로 국경의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2년 6월 아시아 최초로 미국 국토안보부, 2013년 12월 홍콩 입경사무처와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상대방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013년 7월 15일부터는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은 14세 이상의 국민과 부동산 투자이민 외국인 등도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SES (Smart Entry Service)란?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대면심사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제도다. 홍콩 e-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등 4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 SES 이용 대상 확대

### 이용 대상이 많아 졌어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7월 15일부터 국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14세 이상 17세 미만 국민과 부동산 투자 이민자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조치로 2013년 7월 15일부터 주민등록이 된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얻은 사람과 외국인 부동산투자자, 우수 전문인력, 항공기 승무원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경우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 시 연령제한으로 인해 부모와 자녀가 자동출입국심사대와 일반출입국심사대에서 따로 출입국심사를 받는 불편이 일부나마 해소되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기업투자 등 전문직종 등록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용이 허가되던 것을 우수 전문인력, 부동산투자이민자, 공익사업투자이민자, 외국인 승무원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 투자 및 우수인재 유치에 인센티브를 주어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외국인 승무원의 업무수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5월 13일부터 제주도로 입국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시, 제공받은 지문 및 얼굴정보를 활용하여 출국 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시범 운영한다.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색다른 체험이 되어 하나의 관광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제주관광객 유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Expanded Scope of SES Users

### Number of users jump!

On July 15,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expanded the eligible users for Smart Entry Service (SES) to include nationals between the ages 14 and 17 and foreigners in real estate investment, among others. This came as a governmental effort to decrease inconvenience for nationals and to increase foreigner real estate investment in Korea.

Such change now enables adolescent nationals (registered nationals aged 14-17 with parental consent), foreigners in real estate investment, foreigners of advanced talent, airline crewmembers to take advantage of the service beginning July 15, 2013. This partially solves the inconvenience experienced

by traveling families, who up until the change received divided immigration inspection (between SES kiosks and standard immigration desks) based on age. With regard to foreigner use, SES usage is no longer limited to those in professional occupations (corporate investment, etc.) but expanded to immigrants in real estate investment, immigrant investors in public business, foreign crewmembers, etc. The change brings expectations for a reenergized economy by attracting increased foreign investment and talent, while supporting the work of foreign airline crewmembers.

As a side note, beginning May 13, 2013,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conduct experimental trials of Smart Entry System usage for foreigners entering the Jeju Island for temporary stay. The SES will be used at the time of departure by utilizing the fingerprints and face image collected at the time of entry. As SES will be a new experience for many, it is expected to help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of Jeju as new tourism content.

### 자동출입국심사(SES) 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8년 (6월~12월)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1월
이용자 수	834,915	1,943,676	2,637,979	4,054,321	5,734,701	6,606,075

## KOREA & USA

### 한-미 간 자유로운 입출국 가능해요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2011년 4월 양국 국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 이용 협정을 체결하고,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12년 6월 13일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상대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이하 SES: Smart Entry Service)에 사전 가입하고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향후 5년 동안 미국 34개 공항 입국 시,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미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1인당 약 15초 안에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다.

2013년 11월 30일 현재 한국인은 2,921명, 미국인은 1,090명 등 4,011명이 신청하여 총 1,255명(국민 959명, 미국인 296명)이 등록하여 이용 중에 있다.



### Free movement between Korea and USA

In April 2011,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and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reached a reciprocal agreement on the two nations' trusted travelers programs. With system construction complete, the use of e-gate in the partnering country became possible on June 13, 2012, for persons already registered for the respective system in their country (Global Entry in the US or Smart Entry System in Korea). As the resulting benefit, persons already registered in Korea's SES and who are deemed eligible will receive expedited immigration processing at the GE booths without standing in line, when entering the United States at the 34 designated airports for five years (membership duration). This expedited service will increase service efficiency by taking no longer than 15 seconds per person. As of November 30, 2013, a total of 4,011 persons have applied (2,921 Korean nationals and 1,090 US citizens), with 1,255 persons (959 Korean nationals and 296 US citizens) registered and currently using the service.

### GE 인터뷰, 한국에서 먼저 신청하세요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에서 GE 신청과 등록인터뷰 예약하고, 미국 측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44개의 미국공항 자동출입국심사 부스에 방문해 해외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해외심사가 가능한 LA, San Francisco 등 공항 등록센터

의 경우 많은 한국인이 방문하여 예약이 조기 마감되거나 업무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국에 거주하며 심사를 받기를 원하는 미국 국민과 한국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난 11월 11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한시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2주 동안 217명의 미국 국민과 236명의 한국 국민 등 총 453명이 심사를 받았다.

### Apply for GE interview first in Korea

To use the Global Entry service, the application and interview reservation shall be made first in Korea. Once the U.S. grants conditional approval, overseas inspection shall be completed within 90 days from approval date, by visit to one of the 44 GE booth-installed airports in the United States. So far, a number of airports for overseas GE registration have experienced an overwhelming number of Koreans visiting for registration (i.e. Los Angeles, San Francisco, etc.), resulting in early reservation closings and increased processing time. To address this issu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USDHS carried out limited interviews in Korea between Nov. 11-21 this year for the convenience of U.S. citizens and Korean nationals. A total of 453 persons (217 U.S. citizens 236 Korean nationals) received evaluation interviews during this period.



###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가입 대상

- 17세 이상으로서 전자여권을 소지
- 본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한국인은 SES, 미국인은 Global Entry)에 가입
-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제공
- 양국 정부의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 및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 한-미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등록절차

- 1 GE 신청서 작성(www.ses.go.kr)
- 2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 확인
- 3 GE 심사수수료 결제
- 4 GE 등록인터뷰 예약 및 인터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ses.go.kr를 참조

## KOREA & HONG KONG

### 12월부터 홍콩이 가까워졌어요

12월 12일 부터 우리 국민의 홍콩 가는 길이 더 편해졌다. 지난 7월 30일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 성사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과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외국인도 홍콩 공항에서 줄을 서지 않고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는 양국 간 빈번 여행자의 증가에 따라 출입국 편의를 보다 증진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해 3월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약 100만 명 규모로 5회 이상 빈번 방문자가 연간 7천여 명에 달한다.

### A closer Hong Kong, starting December

Traveling to Hong Kong will become much more convenient for Korean nationals starting Dec. 12 this yea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mutual of e-gates between Hong Kong and Korea was successfully realized on July 30 this year. As such, Korean nationals and qualified foreigners may now enjoy faster and quicker immigration inspection service in Hong Kong via e-gates without standing in line at the Hong Kong Int'l Airport.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Immigration Department of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greed to such service as necessary, as the number of travelers to and from each side steadily increased over time. The two agencies agreed to the mutual use of e-gates in March this year. The number of travelers between the two regions is at a yearly average of 1 million persons, with frequent visitors (five or more visits a year) around 7,000 a year.

### 이용 신청은 간편! 출국심사는 신속!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국민은 17세 이상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홍콩 자동출입국심사(e-channel)를 신청할 수 있다.

12월 12일부터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ES 등록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바로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 후 6개월 이내 홍콩 공항에 방문하여 지문·얼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등록이 완료된다.

### Easy application! Fast immigration inspection!

Persons registered for the Smart Entry Service (SES) in Korea may apply for the use of Hong Kong's e-channel if meeting the user criteria. For Korean nationals, this refers to SES-registered persons who are 17 or older. Beginning Dec.12, application for the use of e-channel will be available online on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s webpage. Application requires a SES registration confirmation and is free of charge. Once application is submitted online, registration is complete after the provision of fingerprints and face image by visiting the Hong Kong Int'l Airport within 6 months from the date of application. 🇭🇰

###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등록절차

- 1 한-홍콩 자동출입국 신청( www.ses.go.kr )
- 2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 가입 여부 확인
- 3 상대국 조건부 승인(상대국 홈페이지에서 심사결과 확인)
- 4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센터 방문, 정보 제공 및 인터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ses.go.kr를 참조





와타나베 미카 Watanabe Mika

권앰파이 Gwonampi

## 글로벌 시민문화 만들기 우리가 앞장서요!

선진국의 이민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민자를 사회가 돌봐야 하는 소외계층이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이 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민자들이 주도적으로 모여 결성한 15개의 자조모임을 하나로 묶은 글로벌커뮤니티협회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글로벌커뮤니티협회와 물방울 나눔회 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와타나베 미카(일본, 결혼이주여성) 씨와 새내기 회원으로 활동 중인 권앰파이(태국, 결혼이주여성) 씨를 만나 자조모임의 오늘을 들여다보았다.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지난 10월 19일,  
15개 자조모임 단체가 모인  
글로벌커뮤니티협회가 발족했다.  
한국의 다문화 자조모임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최근 다문화 자조모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다문화정책의 지원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비춰졌던 그들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사회참여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결혼이주민의 주도로 결성된 자조모임은 지역 단체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각종 사회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에도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그에 화답이라도 하듯 지난 10월 19일, 15개 자조모임 단체가 모인 글로벌커뮤니티협회(이하 커뮤니티)가 발족했다. 한국의 다문화 자조모임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미카** 지난 1년간 다우회, 주한몽골이주여성회, 톡투미 등 15개 자조모임 단체장이 매월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온드라 서울시 외국인명예부시장, 몽골 출신의 서울시 윤승주 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해 좋은 의견도 내 주었고요. 이제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정책 업무의 실무자가 되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다문화 정책 기관에서 먼저 현장의 목소리를 요구해 오는 시대가 된 만큼 우리도 변화에 발맞추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커뮤니티를 발족하게 되었죠.

**권앰파이** 신문을 통해서 커뮤니티의 발족과 미카 씨의 초대협회장 선출 소식을 들었어요. 물방울 나눔회 회원 모두가 미카 씨를 축하해 주었죠. 지금도 일이 많아 부담이 클텐데 회원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나서서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의 발족은 결혼이주여성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기도 하니까요.

**미카** 이렇게 응원해주시니 용기가 생기네요. 사실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결혼이주여성에게 '개척정신'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양한 편이지만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이 먼저 나서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임도 필요합니다.

**권앰파이**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나요? 15개 자조모임이 모였다고 하니 든든하기도 하고,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되어서요.

**미카** 다문화 관련 정책 개발과 제언에 적극 참여할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겠죠? 시행기관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나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각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토론회를 열고, 정책에 대해 분석 중이에요. 1월에는 정책 전문가를 모시고 세미나를 열어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글로벌커뮤니티협회 소속 단체 현황**

단체명	단체 성격
경기다문화협동조합	이주여성들의 지식과 정보나눔 http://cafe.daum.net/mcwom
다우회	다문화가정의 봉사활동
러시아커뮤니티협회	러시아와 한국의 언어와 문화교류
물방울 나눔회	문화행사 기획 및 봉사활동 http://cafe.daum.net/water.drop
생각나무 BB센터	이중언어 교재개발, 이민자 교육 http://bbcenter.co.kr
주한몽골이주여성회	이주여성 역량 강화 및 정보 공유 http://cafe.daum.net/mglwa
톡투미	이주여성 자립 교육과 봉사활동 http://cafe.daum.net/TALKTOME
필리피노 한국배우자협회	필리핀 국제결혼가정 정보 교류
한국다문화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문화예술 인재발굴과 전통 공연 시연, 봉사활동 http://www.globalfamily.co.kr
한국이주여성연합	여성 역량강화 교육, 세계 전통공연 http://cafe.daum.net/dlwndutjd2010
한국캄보디아 다문화 국제교류협회	캄보디아어 교육, 가족상담 및 통번역 서비스 http://cafe.daum.net/gksrnrzkaqheldk
한베가정 동서카페 모임	다문화 축제, 주말농장 운영, 가족상담 http://cafe.daum.net/nhung
한베서울결혼이민자조모임	배우자나라 언어 배우기, 정보 공유
TAW(터키) 네트워크	이민자 관련 정책제안 및 상담 http://top.cafe.daum.net/ASIAWOMENS

**결혼이주여성들의 바로서기**

물방울 나눔회의 모임 운영자와 신참 회원으로 활동 중인 미카 씨와 권암파이 씨, 두 사람은 어떻게 자조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미카** 한국생활 20년 차 베테랑이지만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새내기 결혼이주여성들 같이 모든 게 어려웠어요. 다행히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죠. 2001년 '한일문화교류회' 모임을 통해 부천 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간의 문화 교류 활동을 시작으로, 여러 모임을 전전했어요. 그 과정이 쌓여 지금은 1,300만 명 회원의 자조모임 운영자가 되었네요.

**권암파이** 늘 활발하신 미카 씨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요. 저도 지금은 동네 부녀회원으로 활동할 만큼 활발하지만 결혼 초기에는 한국말을 잘 못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두려웠어요. 그러다 자조모임을 알게 되고 친구를 사귀면서 달라졌죠. 서울 양천구 적십자활동은 올해로 2년째, 물방울 나눔회 활동도 벌써 3년이나 되었어요.

**미카** 물방울 나눔회가 결성된 것은 KBS <러브인아시아> 프로그램의 공이 커요. 우연한 기회에 2006년부터 방송 일을 하면서 인맥도 넓어졌지만 무엇보다 방송을 통해 매주 새내기 결혼이민자를 만나 그녀들의 다양한 고충을 들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던 출연자들과 함께 2009년에 물방울 나눔회를 만들었죠.

**다문화가정의 행복이 방울방울!**

물방울 나눔회는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여 왔다. 열성적이고, 건전한 활동 현장에 미카 씨와 권암파이 씨도 있었다.

**미카** 물방울 나눔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행사 기획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년째 운영 중인 다문화 글로벌 아카데미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 개념강의입니다. 출신국이 다른 회원이 3인 1조가 되어 다문화 강사로 파견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요리를 소개하고 있지요. 덕분에 학생들 반응이 뜨거워요. 꿈드림학교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실용적인 직업교육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직업과 진로 계획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권암파이** 물방울 나눔회의 문화행사는 자조모임 사이에서도 유명하죠. 물방울 나눔회를 통해 201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글로벌 패션쇼에 참석했어요. 20명의 회원이 한복과 각 나라의 전통의상을 번갈아 입고 런웨이를 걷는 행사였는데,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 당시에는 무척 떨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어요.

**미카** 태국에서 미용사로 일 했던 권암파이 씨가 그 때 행사장에서 다른 분들 헤어스타일도 챙겨 주셨죠? 그 때처럼 저희의 도움을 요청하는 외부 문화활동 외에도 서울 인사동과 청계 광장 등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매년 '문화나눔마당' 행사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강원도 흥천에서 콘서트 형식으로 행사를 열어 농어촌 지역에 계신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자조모임에서 새로운 꿈을 꾸다**

열혈 활동가인 그녀들에게 자조모임의 의미를 물었다. 한편 조심스레 자조모임의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권암파이 씨에게 선배 미카 씨는 어떤 조언을 해 주었을까.

**권암파이** 자조모임은 한국생활에서 느끼는 희로애락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울타리 같아요. 모임에 가면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늘 즐거워요. 또 자조모임 활동을 통해 그 동안 제가 한국에서 받은 정을 돌려줄 수 있어서 스스로 보람도 느끼고요.

**미카** '울타리'라는 표현이 참 가슴에 와 닿네요. 자조모임은 다문화가족 스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리고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데 앞장선 용기 있는 리더들의 모임이기도 해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 깊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심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배울 수 있는 게 자조모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마치 마음의 훈련장과도 같아서 모임을 운영하면서 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권암파이** 물방울 나눔회 활동 말고도 현재 부천 지역의 태국 출신 이주여성들과 함께 전통춤 공연을 하는 '태국그롭공동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싶기는 한데, 회원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문제도 어렵고, 부족한 예산도 고민이에요.

**미카** 어느 자조모임이나 상황은 마찬가지로 거예요. 저도 매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결론은 자조모임은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결 같은 미소로 사람들을 반겨주시는 권암파이 씨 곁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 확신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김치!**

유한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유한버들봉사단', 새터민(탈북자) 다음학교 학생들과 함께 부천지역 인근의 소외이웃을 위한 김장봉사 활동에 나선 두 사람. 빨간 고무장갑을 아무지게 끼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김치 속을 정성껏 버무렸다. 그녀들의 요리 솜씨는 어떨까?

**미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김장을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김치는 맛있지만 김장 준비는 너무 힘이 들잖아요.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해야 힘든 줄도 모르고,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암파이** 2012년에는 인천시 주최로 열린 김장대회에서 1등을 한 적도 있어서 김장은 자신 있어요. 또 재래시장에서 세계 전통음식을 만드는 대회에도 참가해 100만 원을 상금으로 받기도 했어요.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라 남편도 제가 해준 음식은 뭐든 잘 먹어요.

**미카** 권암파이 씨에게 오늘 김치 담그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겠어요.

이날 봉사활동 현장에서 두 사람과 물방울 나눔회 회원들은 누구보다 즐겁고, 유쾌하게 봉사를 참여했다. 이들이 직접 담근 김치 1,760kg는 부천 지역 내 어르신 및 장애인, 저소득 가구에 배달되었다. 김치와 함께 그녀들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전달되었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사회의 굳게 닫혀있는 마음도 따뜻하게 녹이는 그녀들의 행보를 응원해본다. ☺



# 차별 대신 평등을! 평행선 대신 행복의 교집합으로!

스스로 편견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꾸만 편견에 갇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아이들처럼 함께 뛰놀고 함께 이야기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진정한 소통은 함께 하는 데서 시작한다. 당신의 편견을 깨보고 싶는가? 생생한 다문화수업이 펼쳐지는 교육 현장으로 초대한다.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촬영협조 삼정복지회관



최영매

김광염



**“편견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처럼 어울려 보세요”**

최영매 & 김광염(다문화강사)  
2년 전에는 부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난해에는 삼정복지회관에서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해서 아이들 대처법이나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노하우만큼은 자신 있어요. 수업에 필요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나 정성이 많이 들어서 투철한 봉사정신과 진정으로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장 수업을 하면서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개선과 교육이 절실하다는 점이에요. 편견은 가장 높은 벽이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허물 수 있는 벽이기도 합니다. 편견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처럼 어울려 보세요.



**니하오, 라오쉬!**

부천 삼정복지회관 내 어린이집 은하수반에 특별한 선생님이 방문하자 “你好, 教师(니하오, 라오쉬 : 안녕하세요, 선생님)”라고 아이들이 중국어로 먼저 인사를 했다. 중국에서 온 최영매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다문화수업을 하는 날! 아이들의 모습에서 매번 다문화수업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직접 중국의 전통공연 때 무용수들이 사용하는 붉은 손수건을 손 끝으로 돌리며 시범을 보이자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도 해보겠다고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아이들 반응은 단연 최고다. 선생님이 세계 지도를 펼치자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듯 아이들은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재빨리 찾아냈고, 전 세계의 국기를 보면서 다른 점도 금세 발견해냈다.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똑같은 국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것처럼 여러분과 얼굴 피부색이나 머리색이 조금 다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도 놀리지 말고 오늘처럼 친구의 멋진 점을 칭찬해 주세요.” 아이들은 편견 없이 함께 뛰놀면서 다름의 개념을 차별이 아닌 개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삼정복지회관은 지역 내 급증하는 결혼이주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다문화 인식 인형극’을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5월부터 다문화 인식 개선 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다문화 강사를 배출하고,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등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김경선 사회복지사는 “전문 다문화강사로 양성된 결혼이주여성들이 부천 시내 육아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 현장으로 2인1조로 파견돼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와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활동 중”이라면서 “다문화강사들의 생생한 이야기 덕분에 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서 부천뿐만 아니라 인천, 서울에서도 현장 교육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문화 교육 학생에서 선생님이로**

어느새 바다반으로 자리를 옮겨 김광염 선생님의 다문화수업이 이어졌다. 중국 전통의 상인 치파오를 멋지게 차려 입은 선생님처럼 두 명의 친구들이 치파오를 입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같은 옷을 입자 아이들은 “가족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며 부러운 눈초리를 보냈다. 김광염 선생님은 치파오를 입은 두 친구를 제자리로 돌려보냈다. “오늘은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죠?” 다양한 국적의 전통 의상과 놀이 소품을 준비하고, 동화책에 쓸 이야기를 쓰고, 신문지, 화장지 등 실생활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를 교구 삼아 만들기까지, 다문화강사들의 열정과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수업 준비만으로도 벅갈 텐데 요즘에는 12월에 열릴 다문화 인식 인형극 준비로도 눈코 뜰새 없단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재미있게 다문화를 알리고, 한국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 때문에 피로도 가신다고. 한국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주민의 노력만큼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이주민을 존중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희망의 싹은 교육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성숙한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해 힘쓰는 열혈 다문화강사들의 활동을 응원한다. 🌸



유학생 출신 매경닷컴 신입사원

# 유신 劉旼



## 목표의식은 확실하게 도전은 열정적으로~

3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1일 매경닷컴 제1호 외국인 직원이 된 유신(중국) 씨. 좀처럼 풀리지 않는 채용시장의 난관을 뚫은 그만의 취업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정규직 전환의 출근 첫 날을 떠올리자 다시금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신입사원 유신 씨를 만나 보았다.



### 인턴 생활 종료! 화려한 정규직 라이프로~

“정직원 신분증을 받은 순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인턴 때는 통번역 업무만 했는데 이제는 매일경제와 MK차이나 사이트 운영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도 더 커졌죠. 새로운 일을 배우는 맛에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어요.”

3개월간의 인턴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1일 매경닷컴 제1호 외국인 직원이 된 유신(중국) 씨. 정규직 전환의 출근 첫 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감정이 북받쳐 오른다. 유신 씨가 현재 몸담고 있는 플랫폼 개발국 전략기획팀은 매일경제신문, 매경이코노미 등 미디어 관련 앱 개발과 기획,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다. 사이트 운영과 함께 앱 개발 기획안 작성법과 개발 과정 등 한국인 동기들과 똑같이 신입 교육을 받고 있다. 어려움이 왜 없을까.

“첫 외국인 직원이라는 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스스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부장님께서 ‘회사에서 유신 씨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으니 먼저 찾아서 하면 돼’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툭’ 하고 찔렀어요. 그날 이후로 중국 미디어와 연계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시작했죠.”

### 한국문화에 녹아 들되 나만의 장점 살려라

일찍부터 한국어가 외국어로서 경쟁력이 크다고 판단한 그는 한국어 공부에 힘썼다. 중국 서안외국어대학교와 인제대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한국어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바탕으로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연구 개발’이라는 제목의 졸업논문도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그가 한국인과의 매끄러운 소통이

가능한 비결이다. 또 늘 밝고, 적극적인 성격은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2008년 부산에서 열린 ‘외국인노래경연대회’와 ‘페스티벌 노래경연대회’에 참가해 연이어 우승을 거머쥐고, 최근에는 EBS 라디오방송 <서울 생활 가유전>에 게스트로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과시하는 등 한국생활에 적극적으로 녹아 들었다.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원한다면 확실한 목표의식과 장래계획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아요. 또 자신이 입사하기를 원하는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보세요. ‘외국인’이라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스트레스만 받고, 일에 대한 열정도 없어질 수 있어요. 도전과 용기를 즐기세요. 저는 요즘 ‘춤’에 도전하고 있어요. 매경미디어그룹 내 전 계열사 임직원이 모이는 송년축제가 12월 26일에 열리는데, ‘칼군무’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퇴근 후 동기들과 맹연습 중입니다.”

### 유신씨의 취업성공 노하우 살펴보기

- **한국어는 실전으로 익혀라**  
역시 언어는 실전으로 익히는 것이 최고입니다. 노래대회에 나가면서 친구들과 교수님이 제 발음을 정확히 잡아주었고, 가사에 맞게 한국식 표현도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 가요로 개인기를 뽐낼 정도로 자신감도 늘었고요. 그 나라의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언어도 빨리 느는 것 같아요.
- **인맥을 활용한 취업정보 수집**  
2011년부터 중국인유학생회 단체 활동에 참여해 중국인 유학생들과 친분도 쌓고, 고급 취업정보도 공유해 왔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대상 채용공고나 정보가 체계적이지 못해서 대부분 인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 사랑 받는 디바! 무대 위 저를 기대해주세요

TV 속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의 모습을 동경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처럼 다른 이들의 시선을 빼앗는 멋진 디바가 되겠다는 다부진 꿈을 꾸는 9살 소녀가 있다. 무대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처음 만나는 누구에게도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야 마는 매력을 품고 있는 소녀. 미래의 스타, 김유리 양 (유목초등학교 3학년)의 꿈은 하룻밤 사이 자라버린 키만큼 성큼성큼 자라고 있다.

### 가슴 속 두 언어, 두 나라

다문화 가정의 아이는 부모님의 문화와 언어를 함께 배울 수 있어 자연스레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님과 함께 필리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김유리 양의 경우처럼. 여섯 살까지 필리핀에서 생활했으니 짧은 9년의 인생에서 반이 넘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낸 셈이다. 그렇기에 한국어가 조금 서툴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경상도 사투리가 묻어나는 말투가 정겹기까지 하다. 9살 아이 답지 않게 집에서는 세 동생들을 살뜰히 돌보고, 학교에서는 학업이나 교내생활등 모든 면에서 똑 소리 나는 3학년이라고. “학교 수업이 재미있어요. 저는 수학이랑 영어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 체육은 싫어해요. 다칠까봐 무섭거든요.”

유리는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전국다문화학생 이중언어말하기 대회에 경남 대표로 참여하여 당당히 초등부 대상을 수상했다. 중·고등학생 언니 오빠들 사이에서 ‘나의 소중한 두 나라’를 주제로 한국에 와서 겪었던 어려움을 한국어와 필리핀의 따갈로그어로 유창하게 발표해 큰 박수를 받았다. 난생 처음 서보는 큰 무대 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몸집보다 큰 목소리로 발표를 했을 유리에게 떨리지 않았냐고 묻자, “떨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대회 나가려고 연습을 많이 해서 좀 힘들었어요”라는 어린 아이디어 천진한 대답이 돌아온다.

### 내 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세상을 물들일래요

7살이 되던 해, 한국으로 온 유리는 유치원을 다니며 한국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가족보다 먼저 한국에 건너와 직장 생활을 하던 유리의 엄마가 보금자리를 마련하자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오기를 결심한 것이다.

아이들의 적응력은 놀라울 정도다. 3년 후, 유리는 여느 아이들처럼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손을 번쩍 들기도 하고, 국수와 돈까스를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꼽는 평범한 초등학교 3학년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유리가 또래처럼 열렬히 좋아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아이돌 가수다. 전 세계에서 사랑 받는 K-POP 스타처럼 노래하고 춤추며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는 것이 유리의 꿈이다. “가수가 되어서 노래를 많이 배우고 싶어요. 가수는 노래를 잘 해야 하니까 연습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합창단을 했어요.” 과연 끼를 타고나서인지, 전국의 다문화 학생들이 모인 대회에서도 떨리지 않았다는 말이 이제서야 수궁이 간다.

한국으로 오기 전 필리핀에서 ‘예쁜 아기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유리. 이름처럼 티 없고, 맑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커다란 눈과 보는 이로 하여금 따라 웃게 만드는 환한 미소는 눈길이 한번 더 가게 만든다. 거기에 노래 실력까지 갖추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을 텐데, 유리가 들려주는 노래는 어떨까?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꼽는 시스타의 ‘러빙 유’를 부르는 목소리가 한 치의 쑥스러움이나 수줍음 없이 맑디 맑다. 촬영 날, 난생 처음 만져보는 기타도 자유롭게 통기며 여유롭게 리듬에 몸을 들썩이는 이 소녀를 주목하자. 당당히 ‘미래의 디바’ 탄생을 예고하던 현장이었다. 🎸



K-POP 스타를 꿈꾸는 소녀

김유리





A youthful and artistic playground that cannot be imitated

# HONGIK STREETS

모방할 수 없는 청춘과 감성 놀이터

예술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누군가에게든 말을 걸어 공감하고, 소통하는 특유의 호소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술이 우리 삶에 이토록 강한 울림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예술, 그리고 청춘들이 건네는 삶의 위료가 한순간 사라지는 신기루가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곳이 서울 중심가에 있다. 주소보다 '홍대 앞'이라는 지명으로 더 유명한 홍대거리로 떠나보자.

Hongik University is well-renowned for its faculty of Fine Arts, which tops the nation's ranking, as well as the Hongik Streets (Hongdae) that extend from the university campus through Seogyo-dong and Donggyo-dong. This was a hilly district covered with vast vegetable fields in the 1920s, and it wasn't until 1957 that planned development took place with the Seogyo Residential Site Development Project. In the late 1970s, it became home to a number of wedding halls, and was referred to as the "streets of wedding halls." These days, Hongdae is packed with young clubbers, expressing their individuality by sporting unique fashion items from head to toe, and the building walls are covered in graffiti painted by young artists. When you walk around Hongdae, you will find yourself suddenly making a halt to take a listen to indie bands and artists busking on the streets and to stop by an art gallery to see if there is an artwork by an up-and-coming artist that catches your eye.

### The Trendsetters' Hide-Out

Most people enter the Hongdae area situated in Mapo-gu, Seoul, through the Hongik University Station on Subway Line #2 (Green Line). You can take Exit 9 to tour the "Street People Want to Walk On" to the west, or the "Accessory Street," which is part of the "Parking Lot Street," to the east before heading toward Hongik University. Because the shoppers in this area are mainly students majoring in art and design with a great sense and keen eye for fashion, Hongda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fashionable places in Seoul. The winding streets are lined with small shops, and this scene is reminiscent of the Cat Street in Tokyo, Japan. The unique and



trendy shop signs and interiors are definitely eye-catching as well.

If you are the type to lean toward clothes and accessories that make you stand out, you will fit right in. Hongdae is a place where you can find trendy and unique clothes and other fashion items, ranging from socks and scarves to purses, necklaces and rings. This is truly a one-stop shop for fashionistas and trendsetters, who are bound to find the perfect items to adorn themselves with from head to toe. There are many shops that sell clothes and accessories designed and handmade by students majoring in fashion design, and there are no better places to find such fashionable yet affordable items. Most of the shops open past lunchtime, so it is recommended that you visit Hongdae in the afternoon if you plan on sho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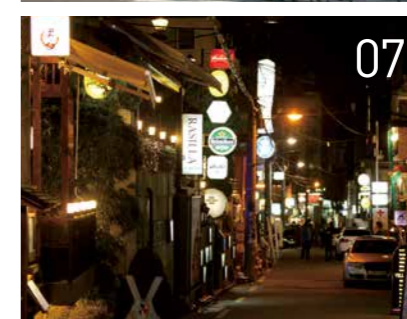


### Culture Spreading Via the Aroma of Coffee

It was 1993 when the fine arts students of Hongik University began drawing and painting on the nearby streets, and this was how the "Street Art Exhibition" began. More students exhibited their artworks the following year and years after that, and this is how the "Mural Street" came to be. Hongdae is now covered in fantastic graffiti works, and there is no building that isn't proudly decorated in art. Young, talented and experimental painters, designers, artists and writers have gathered together in this area and together, they have created a bold and daring atmosphere that captures their youthful energy. The artistic and cultural spaces that have gradually popped up one by one in the area such as Sangsang-Madang (Imagination Yard), Eongttung-Sangsang

(Whimsical Imagination, and Seogyeo Arts Experiment Center have their doors wide open for art enthusiasts.

People have also taken note of the recent evolution of the coffee culture in Hongdae. The "Old Café Street," stretching from the end of the Parking Lot Street to Exit 4 of Hapjeong Station (Line No. 2), and the "New Café Street," found right behind Exit 4 of Sangsu Station are packed with a wide variety of coffee shops including old music cafes and themed cafes. Of these unique coffee shops, Iri Café and Jebi-Dabang are iconic coffee shops that actively promote the arts by hosting poem recitals and exhibiting artworks by rising artists. At Yak-dabang Bomdong, you can sit in a cozy sofa, while drinking a cup of herbal tea that will heal your body, mind and soul and relaxing your feet in an herbal footbath.



- 01 The building walls are covered in graffiti painted by young artists.
- 02, 04, 06 Hongdae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fashionable places in Seoul. You can find trendy and unique clothes and other fashion items.
- 03 The unique and trendy shop signs and interiors are definitely eye-catching as well.
- 05 Hongik University is well-renowned for its faculty of Fine Arts.
- 07 Various bars and pubs as well as live music clubs that mainly play punk rock and techno music.
- 08 At Yak-dabang Bomdong, you can sit in a cozy sofa, while drinking a cup of herbal tea that will heal your body, mind and soul and relaxing your feet in an herbal footbath.





### Music that Completes the Night in Hongdae

The Hongdae Cultural Movement was sparked by the unique coffee shops that began to line the streets in the early 1990s, and Hongdae became the center of indie music with famous indie bands flocking to the area to perform at the live music clubs. Over time, the music spectrum broadened to include not just indie rock music but also jazz, reggae and acoustic music. When the clock hits 7, 9 and 11 p.m., the red curtains hanging over the stage of Radio Kitchen are lifted to unveil the acoustic band or artist behind them. The audience can drink beer or cocktails while enjoying live music, conversing amongst themselves and basically unwinding after a long day. However, if you are more into more intense music that makes your heartbeat race and your eardrums feel as if they are about to burst, then walk through the street between the main gate of Hongik University and Geukdong Broadcasting



### “Hongdae is beyond your expectations.”

Briony, who has been in Korea for about 3 months, frequents Hongdae. This is because her workplace is nearby, and this is the spot that she and her friends always meet. “I got my hair done at a hair salon in Hongdae today. I often go to the clubs in Hongdae at night. I am a pretty good dancer. I love Hongdae because the kind of fun you can have here is beyond anyone’s expectations and it is filled with energetic people.”

Briony Price (24, Graphic artist)

Station. This area is concentrated with various bars and pubs as well as live music clubs that mainly play punk rock and techno music. There is also a “Pocha (Tent Bar) Street” centering on the famous Samgeori Pocha. Here, the food served in a nickel-silver pot, retro interior and 90s music will take you back in time, and let you experience the old, “analog” days of Korea. The annual flea market, which unfortunately is not open in winter, is held on the playground in front of Hongik University every Saturday from March to November, and the street performances by amateur musicians are some of the scenes you should not miss out. If you want to experience what Hongdae has to offer to the fullest, then don’t hesitate to outwardly express your individuality like the young adults you meet on the Hongik Streets. Want to meet the young, talented and passionate youngsters, who are leading the fashion and artistic trends in Korea? Then, head over to the Hongdae and soak in their youthful energy! 🎉

### Snacks and desserts that taste and look special!



**Fried ice cream & 25cm-long fried prawn** You’d get fried ice cream, obviously! But what isn’t so obvious is what the unique combination of a crunchy and hot coating and a cool vanilla filling would taste like... It is absolutely fantastic, to say the least. Also, the 25cm-long fried prawn is one of the most popular items on the menu that is especially loved by foreigners! The fried prawns are served with a special sauce. Place\_ <Baro Twigim >

**Cube Bread** Don’t judge this bread by its cover because despite its hard exterior, the inside is as soft and moist as bread can get! There is a wide variety of bread to choose from such as plain, cream cheese, chives, seed, pecan, green tea and chocolate, and there is bound to be one or several that will tantalize your taste buds. Only a limited number are baked every single morning through a low-temperature fermentation process, and they are usually sold out before the closing hours. So, you’d better hurry! Place\_ <Milk >



## 도전, 나도 베스트 드라이버! 운전면허 취득! 어렵지 않아요

첫 운전의 설렘을 느껴보고 싶지만 언어 문제와 어려운 교통법규 때문에 망설이셨나요? 걱정 마세요. 재한외국인의 친절 도우미, <共Zone>이 상황별 운전면허 취득 절차와 노하우를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 Case1 운전면허 신규 취득에 도전한다면?

1 교통안전교육	의무적으로 1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안전교육 장소는 면허시험장 내 교육장이다.
2 신체검사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를 식별하는 능력은 기본!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시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학과시험 접수	거주지 내 경찰청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민원 안내 데스크에서 학과시험을 접수한다.
4 학과시험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자동차 운전 전에 필요한 지식을 묻는 40문제를 컴퓨터로 테스트!
5 기능시험 접수	학과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시험장 민원 안내 데스크에서 기능시험을 접수한다.
6 기능시험	출발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와이퍼 조작, 전조등 작동, 50m 주행 등 11개 항목을 테스트한다.
7 연습면허 발급 및 도로주행시험 접수	기능시험에 합격하면 연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도로주행시험을 접수할 수 있다.
8 도로주행시험	총 연장 5km의 운전 능력, 운전자의 태도, 안전수칙, 교통신호 준수 등 31개 항목을 평가 및 채점한다.
9 면허증 발급	각 응시종별 응시과목을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면허증을 교부한다.

### Case2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를 교환하고 싶다면?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고자 할 경우, 대사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통해 면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적성검사 또는 간이학과 시험을 거쳐 국내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미국, 칠레, 캐나다, 스페인 등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 13개 국가 외에도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 되는 116개 국가를 포함해 현재 총 129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준비물 외국면허증 원본, 대사관 확인서(미국 면허는 미국에서 발행된 아포스티유(Apostille)), 여권 원본(입·출국 스탬프로 면허증 발급국가에서의 90일 이상 체류 확인), 출·입국사실 확인서(출국부터 현재 입국까지,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발급), 주민등록증 원본(영주권자는 거소신고증 원본), 수수료 (신체검사 4,000원, 간이학과 응시 6,000원)



### Tip1 외국인 운전면허교실 신청하기

경찰청은 2007년부터 외국인을 위한 운전면허교실을 운영, 현재 전국 121개의 경찰서에서 교통법규·제도 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어로 된 교육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통역인을 통해 외국어 운전면허 수업도 지원한다. 해당 경찰서 사정에 따라 참여인원, 수업 사용 언어 및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해당관서에 문의하자.

### Tip2 모국어로 학과시험 보기

경찰청은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해 학과시험을 영어와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능시험의 체력차량에 10개의 외국어 안내문을 구비했다.





# 추운 겨울 밤, 팔죽으로 추위도 건강도 함께 잡자!

일년 중 가장 밤이 길다는 동지에 먹는다는 팔죽. 귀신을 쫓고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도 추운 겨울, 몸을 녹이기에 팔죽만한 음식은 없다. 붉은 팥을 삶아 거른 팥물에 쌀을 넣고 쉰 팔죽에 찹쌀가루를 반죽하여 동그랗게 만든 새알까지 동동 띄운 팔죽으로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마리나(러시아, 33) 씨 가족의 솔직 담백한 팔죽 사식기에 동행해 보았다.

한국에 온지 올해로 9년째가 된다는 마리나 씨는 유독 팔죽을 보면 할머니 생각이 난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가장 잘 해주셨다는 음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죽과 비슷한 러시아 음식인 '까샤'였기 때문. 따뜻하고 든든하게 속을 데워준다는 점도 비슷하다. 남편인 최성주 씨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마리나 씨 때문에 한국 음식을 먹는 데에는 제약이 많지만 팔죽은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먹는 음식이란다. 추운 겨울이면 진한 팔죽에 소금을 넣어 먹는 것을 즐긴다. 뜨거운 팔죽이 한 김 식기를 기다리는 동안 마리나 씨와 최성주 씨의 두 아이들은 팔죽의 새알을 들었다 놔다 하며 학교에서 배운 팔죽의 유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바쁘다. 각자의 그릇에 팔죽을 덜고 기호에 따라 소금이나 설탕을 집어넣어 한 입 가득 입에 넣으며 추위에 언 몸을 녹이는 이들 가족에게 팔죽은 과연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



### 팔죽의 글로벌 친구! 러시아의 죽, 까샤(Kasha)

어린 아이들이 이유식 대신에 먹었다는 러시아의 죽을 까샤(Kasha)라고 한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국민 음식으로, 러시아의 식생활 문화를 대표하는 요리 중 하나이다. 보리나 메밀 등의 곡물을 넣고 우유와 함께 끓여 흑빵 등과 함께 먹곤 한다. 러시아는 한랭지대이기 때문에 카사처럼 단백질원을 충분히 보충하는 요리가 많고, 보존이 용이하도록 고안된 빵 류나 유제품 요리, 곡류요리가 많다.



최성주 (43세)

별점 ★★★★★

결혼 전에는 집에서 어머니가 직접 팔죽을 쑤어서 많이 먹었어요. 그 때의 기억 때문인지 지금도 가끔 겨울이 되면 팔죽이 먹고 싶더라고요. 팔이 많이 들어가 되직하고 끈끈해서 팔의 냄새가 특히 진하네요. 제 입맛에는 소금을 조금 넣어서 먹는 것이 더 맛있네요. 김치와 함께 먹는 팔죽의 맛이 일품이에요.



넴코바 마리나 (33세)

별점 ★★★★★

죽을 좋아해서 그런지 팔죽을 처음 먹었을 때에도 별로 거부감은 없었어요. 러시아의 죽은 우유를 넣어 조금 부드러운 느낌인데 팔죽은 밥을 먹는 것처럼 든든해서 좋아요. 늘 밖에서 사먹기만 했는데, 직접 만들어 먹기에도 어려울 것 같진 않아서 레시피를 찾아 집에서 한 번 만들어서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고 싶어요.



최에카테리나 (13세)

별점 ★★★★★

호박죽이나 닭죽 같은 죽을 좋아해요. 엄마가만 들어주는 러시아 식 죽도 좋지만, 팔죽은 또 그것과는 다른 맛이어서 맛있어요. 팔죽이 나오는 전래동화도 많이 보고, 학교에서도 팔죽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기 때문에 빨간 색의 팔죽이 더 신기하고 맛있었어요. 설탕을 넣으면 달콤하고 쫄깃한 떡 같은 새알을 가장 좋아해요.



최대민 (8세)

별점 ★★★★★

달콤한 팔죽은 맛있어요. 팔죽 먹을 때는 천천히, 욕심부리지 않아야 해요. 한입에 새알을 먹으면 새알 속이 아직 뜨거워서 입안이 델 수 있어요. 호호 불어가며 식혀서 먹어야 해요. 떡을 좋아해서 쫄깃한 새알도 딱 제 스타일이예요. 팔죽 말고도 호빵과 오뎅, 봉어빵과 군고구마 같이 한국의 겨울에는 맛있는 간식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 홍콩입경사무처 중견관리자급 교환 연수단-IOM 이민정책 연구원 홍콩 출입국 시스템, 무엇이 다를까?

홍콩과 한국이 12월 자동출입국심사 도입에 한 발 앞서 한층 가까워 졌다. 지난 11월 12일, IOM 이민정책연구원에서 갖은 한국-홍콩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 세미나를 통해 양측의 출입국 업무 처리 현황과 함께 출입국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 했다. 국경을 뛰어넘어 '편리하고 스마트한 출입국 서비스'라는 공통의 관심사로 뜨거운 토론이 오갔던 세미나 현장을 찾아가 보자.



### 두 나라의 이민정책을 토론하다

지난 11월 12일, IOM 이민정책연구원(이하 IOM) 8층 대회의실에서 뜨거운 토론의 장이 열렸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홍콩입경사무처간 중견관리자급 교환연수 프로그램에 참석한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 양국의 이민정책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세미나를 진행한 IOM 조영희 연구원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홍콩연수단원들에게 한국의 이민정책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정책 과제를 연구자적 관점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다. IOM 오정은 연구원의 '한국의 글로벌 인재유치 정책'에 대한 발표에 이어 홍콩측 주제 발표의 시간도 마련되었다. '안녕하세요'라고 수줍은 인사말이 적힌 PT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차근차근 홍콩의 출입국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발표를 통해 최근 5년 새 152%나 증가한 홍콩의 여객수송의 현황과 함께 CPS(Control Point System), SMARTICS, 전자여권 등 홍콩의 입출국 시스템과 국경관리 정책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 교환연수의 취지에 걸맞게 양측간 열띤 대화가 이어졌다. 당초 3시간으로 기획된 세미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도 다들 토론에 집중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 “벌써 네 번째 한국 방문이네요.”



Mrs. Choi Margaret  
(APIO : Assistant  
Principal Immigration  
Officer)

한국음식을 너무 좋아하는 편이고, 쇼핑 인프라가 잘 구

축되어 있어 한국에 올 때마다 설레요. 저는 홍콩에서 등록부 소속 서기관(APIO)으로, 홍콩 체류허가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는 업무를 맡고 있어요. 오늘 세미나 참석을 통해 한국 이민정책에 대해 다양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었고, 한국이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인상 깊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로 거리가 좁혀진 양국의 이민국뿐만 아니라 국민간의 더 많은 교류를 통해 한국과 홍콩이 발전적인 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공통사는 편리하고 스마트한 출입국 서비스!

“중국국적의 재외동포가 한국에 입국할 때는 어떤 비자를 받나요? 일반 해외동포의 사례와 차이점이 있나요?”

출입국이라는 업무를 공통점으로 두다 보니 서로를 향해 던진 질문도 모두 초점이 그에 맞춰져 있었다. 특히 홍콩 연수단원들은 중국국적 재외동포에 관한 한국이민정책의 맥락과 의미, 즉 조선족이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인 동시에 한국에서는 한민족으로 간주되는 점을 매우 흥미로워했다. IOM 이민정책연구원들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비자 절차 과정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중국 국적 국민의 홍콩 출입국 과정, 다문화가정 2세의 출생신고 등 실무적인 의견을 나누며 이야기 꽃을 피웠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IOM 조영희 연구원은 홍콩의 이민정책 중 우리나라 여객 볼 부분을 세 가지로 압축했다. 글로벌 인재유치 정책, 이민청의 분야별 세분화 그리고 홍콩과 중국 간 국경관리 시스템이다. “일국가 이정부 체제 아래 여권이나 혹은 통행증만으로 왕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홍콩과 중국 간 국경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홍콩만의 특수한 이민정책 상황입니다.” 올해 12월부터 양측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층 가까워진 한국과 홍콩. 참석자들은 양국 이민국의 기민한 협조와 편의 서비스 제공하자는 데 뜻을 모으며 이날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




\*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내외의 이민정책연구를 위해 국제이주기구(IOM)와 대한민국 정부간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이민정책 전문연구기관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IOM 이민정책연구원에는 국제이주와 관련된 국내외 인사들이 연중 방문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iom-mrtc.org](http://www.iom-mrtc.org)



# 응답하라! 법무부 뉴미디어 기자단

Since 2011

 **법무부 직원들**로 구성된 **41명**의 법무부 뉴미디어 기자단은 전국 각지에서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SNS를 통해 **법무 정책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

페이스북 <http://facebook.com/mojkorea>



38  
WOW 출입국 탐방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42  
친절 바이러스  
생각을 바꾸는...



44  
출입국 Hot Line  
유학생 간담회



46  
출입국 News  
4분기 소식



50  
출입국 Q&A

## 2013 WINTER Immigration Now



# 아름다운 광주에서 무한감동을 연출하다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남다르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야기다. 깔끔한 청사와 쾌적한 실내 분위기는 물론이고, 청사 주변의 아름드리 수목들이 운치를 더해준다. 게다가 광주광역시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상무대로와 인접해있고, 지하철 운전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있어 접근성도 뛰어나다. 1년에 걸친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11월 4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 광주출입국관리소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 공간은 넓어지고, 마음은 가까워지고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새롭게 변신했다. 보호관찰소와 합동으로 사용했던 구청사를 떠나 새로운 단독 청사를 마련하여 한 차원 높은 출입국·외국인정책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과거 광주본부세관이 사용하던 부지와 건물을 관리전환하여 1년에 걸쳐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한 신청사는 대지면적 7,687㎡에 건축연면적이 2,981㎡로 구청사보다 2배 이상 넓다. 김석태 관리과장이 사무소 이전에 따른 기본 좋은 변화를 소개했다.

“뒤늦게나마 호남권 대표사무소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어 매우 흐뭇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 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더 큰 책임감이 들기도 하고요. 깔끔한 청사와 쾌적한 환경, 편리한 접근성과 편안한 분위기로 인해 방문 민원인들의 얼굴도 밝아지고, 직원들 또한 개선된 근무환경에서 보다 친절하게 고객을 응대하게 되니 카운터에서의 다툼이나 고성이 사라졌습니다.”

신청사에 들어서면 넓은 주차공간이 방문자를 편안하게 해주고, 청사 주변의 아름드리 수목들이 아늑함을 더해준다. 뿐만 아니라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인공연못과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별관(무지개홀)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족구장과 체력단련실도 설치되어 직원들이 모여 건강과 화합을 다질 수도 있다. 구청사와 비교해 물리적 공간은 확대되었지만 직원과 직원, 직원과 민원인과의 심리적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다.

광주사무소는 청사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일인 11월 2일과 3일 이전을 완료하고, 월요일인 4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전에 따른 어수선함을 말끔히 씻어내고 단기간에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이전업무를 담당했던 김명진 반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혹시라도 구청사로 헛걸음하시는 민원인이 계실까봐 이전 1개월 전부터 이전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지자체, 대학교, 외국인관련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택시운송조합을 통해 택시기사들에게 청사이전에 대해 알리고, 인터넷에서 지도검색을 할 때 신청사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자료 수정을 요청하여 즉각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공직생활의 가장 큰 가치는 '명예'가 아닐까요?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장영채 소장



광주광역시는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이며 문화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때문에 광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지자체와 경제단체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기업과 외국인관광객 유치, 운항노선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의 출입국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출입국심사 업무수행과 지역 발전,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무안공항 출입국심사 전담조직 신설과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과(課)직제 신설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직제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와 저희 광주사무소 직원들은 공직생활의 가장 큰 가치는 '명예'라고 생각하며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명예는 청렴과 성실, 배려와 존중에서 나온다고 믿으면서 '악(惡)을 보거든 뱀을 본 듯하고, 선(善)을 보거든 꽃을 본 듯하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남도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매일 51km 떨어진 무안공항으로 출장**

청사의 이전과 함께 환경적으로는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는 남모르는 고충이 있다. 광주사무소가 관할하는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어 날마다 팀을 꾸려 약 51km 거리에 있는 무안공항으로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사무소에서 무안국제공항까지는 차로 1시간. 때문에 항공기 입항 2시간 전이면 현장계장 1명과 심사관 3명, 출국 심사관 2명 등 6명으로 구성된 출장심사팀은 각자의 고유 업무를 멈추고 무안공항으로 달려가야 한다. 물론 더 많은 인원이면 좋겠지만 기관운영 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정양표 무안공항팀장은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공항뿐만 아니라 동향조사 업무를 병행하면서 단속과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에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사무관을 팀장으로 10명이 상주하며 전담 근무를 하는 세관처럼 우리도 공항에 상주하며 출입국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횟수는 매일 1~3편.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천후 공항인 까닭에 야간운항도 있다. 특히 항공기가 연이어 도착하거나 휴가철과 방학기간 등 전세기가 급증하는 성수기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폭주하는 출입국심사 업무를 수행하기가 버거운 것이 현실이다.

최희주 심사과장은 “신속한 이동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공항업무를 수행하고 돌아와 야간에 보호근무를 하거나 주말이나 야간에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면서 “직원들의 안전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무안공항 출장소를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현재 과(課)직제가 없어 무보직 사무관이 관리과장과 심사과장을 대행하고 있다. 따라서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호남권 거점 사무소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출·입국자의 증가 및 다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출장소 신설과 함께 직제 개정을 통한 과직제 신설이 급선무다.

**불만제로 행정서비스의 원천은 동료애**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극심하게 저항하는 불법체류자 말고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광주사무소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를 돌게 하고, ‘불만제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따로 있다. 직원 간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끈끈한 동료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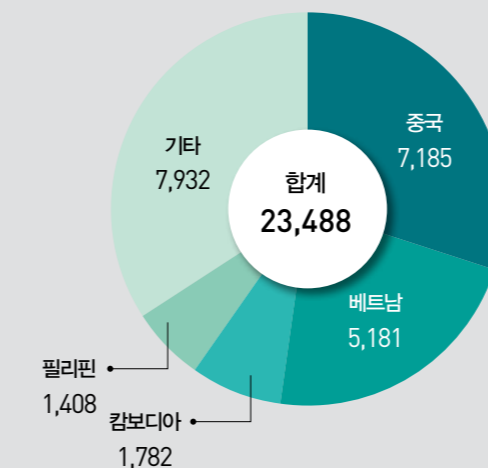


항공기 입항 2시간 전이면 현장계장 1명과 심사관 3명, 출국 심사관 2명(재심직원 없음) 등 6명으로 구성된 출장심사팀은 각자의 고유 업무를 멈추고 무안공항으로 달려가야 한다.

광주사무소의 막내(?) 이계형 반장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직원들 간의 애정과 배려, 끈끈한 동료애가 다양한 어려움과 누적되는 피로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된다”면서 “직원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프로페셔널하게 맡은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광주사무소의 강점을 소개했다. 소장실을 향시 개방해 놓고 직원들과 진솔한 마음으로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장영채 소장 역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칙을 중시하되 다양한 개인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려면 동기부여와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한 열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사회통합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10월 이민자네트워크 회원 35명을 초청하여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과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돌아보는 ‘이민자와 함께하는 지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고현진 반장이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슴에 담아두었던 마음을 전한다. “우리 직원들 각자가 작은 권한을 내려놓고, 내가 대면하는 동료와 민원인을 나의 형제, 나의 가족처럼 대한다면, 우리나라 출입국행정이 최고가 될 것이고, 나라의 위상이 서게 될 것이며, 한국을 찾은 외국인 모두가 감동하는 명품 출입국행정이 구현되지 않을까요?”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기준 : 2013. 10. 31. 단위 : 명)



**외국인 고충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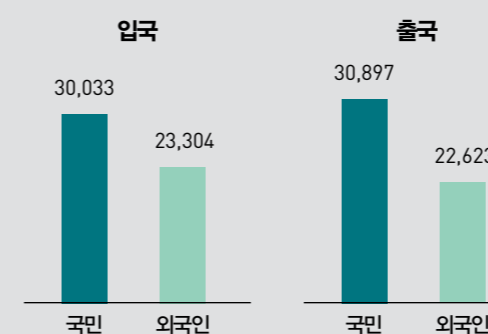
(기준 : 2013. 10. 31. 단위 : 명)

계	체류임금해결		체류	국적	의료	기타
	인원	금액(천원)				
134	8	10,655	19	19	17	71

※ 일 평균 0.7명

**무안공항 출입국자**

(기준 : 2013. 10. 31. 단위 : 명)



※ 일 평균 353명(입국 176명, 출국 177명)



# 생각을 바꾸는 생각! 고수들의 친절 노하우 공개합니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사연과 사례가 일어나는 사이 '큰 고민'을 해결한 민원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들려온다. 마음의 서비스로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친절맨'을 소개한다.

### 마음이 통하면 통역 필요 없죠

최근 수원출입국사무소에는 방문취업(H2)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아요. 한국어가 서툰 민원인과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뜻을 전달하기 힘들 때는 메모지에 필요한 서류나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적어 드립니다. 또 평소 궁금해하던 부분은 없는지 먼저 물어보며 최대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려고 노력합니다. 출입국 업무 특성상 언성을 높이며 민원인과 다투는 일도 많은데, 그때마다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수록 나도 역시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출입국 직원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전홍근 계장(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 업무가 친직인가봐~

제 이국적인 외모 덕분에 여수출입국사무소 민원카운터를 방문하신 체류외국인과 민원인들이 저를 친근하게 대해주세요. 하루는 아내의 국적신청을 위해 사무소를 내방한 민원인이 계셨는데, 구비서류를 빠뜨린 겁니다. 서류의 샘플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며 민원인이 서류에 대해 모두 이해할 때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외국에서는 우리도 똑같이 외국인 처지고, 업무 처리가 서툰 민원인이 될 수도 있죠.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체류외국인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친절한 자세가 아닐까요?

정유건 반장(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 다문화가족의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대전 이민통합지원센터는 6월 재한외국인 안과 무료검진에 이어 8월에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종합건강검진 등 건강 지킴이 행사를 실시해 다문화가족이 가족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이민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명감과 자긍심만으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친절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직원들과 힘을 합쳐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교류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이민자 사랑방'도 마련했습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수유실 및 주방시설을 마련했으니 이민자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 편히 놀러 오세요!

이병수 이민통합지원센터장(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안방까지 행복 배달해 드려요

대전에서 멀리 떨어진 태안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대전출입국사무소로 해피스 타트 교육을 신청해서 상황 파악을 위해 제가 남편 분과 통화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임신 9개월 짜 접어든 아내가 우리소에서 지급하는 필리핀어판 한국요리책이 너무 갖고 싶어서 먼 곳까지 교육을 신청한 것이었죠. 요리책과 함께 '한국생활길잡이' 필리핀어판 안내문, '행복드림 해피스타트' 교재 등 한국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아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이민재단 소속의 다문화사회전문가로 대전 이민통합지원센터에 파견 나와, 센터 직원들과 한 식구처럼 일하는 동안 출입국 직원들의 사랑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나 봅니다.

박기화 다문화사회전문가(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따뜻한 만남 아래에서 위로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시대. 한국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 고국과 더불어 양국에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겠다는 아무진 꿈을 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주여성들 또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통역자원봉사 등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색 간담회를 주최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자원봉사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 센 차다니(27세, 캄보디아)

“3년 전 한국에 와서 현재 인하대학교 에너지공학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몇 해 전부터 캄보디아에서 K-POP이나 드라마 못지않게 IT 분야에서도 한류열풍이 불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죠. 연구와 논문 수행에만 집중하느라 한국 국내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한 것이 제일 아쉽습니다. 또 아르바이트나 인턴십 같은 다양한 구직 경험을 하고 싶어요. 저와 같은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업 비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 기업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장관님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늘 장관님의 격려가 많은 유학생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난 11월 22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민자 사랑방은 맹추위가 이르게 찾아온 바깥 날씨와 달리 온기로 가득했다. 출신 나라도, 나이도, 성별과 직업도 제각각인 많은 사람들이 만났음에도 시종일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으면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현장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사무소를 찾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재한외국인을 대표하여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놓은 인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출신 ‘한우리봉사단’ 자원봉사자간의 대화는 진솔했고, 그래서 더욱 뜻 깊었다.

“이국 땅에 와서 공부하며, 더 큰 꿈을 키우기 위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말에는 ‘고생이 약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뜻을 이루어 꼭 성공하길 바라고,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와 고국에 고루 기여하는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황교안 장관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학생 우유난(중국)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학업과 취업활동을 병행하는 유학생이 크게 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취업시간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에 황교안 장관은 형식적인 지도교수 추천 절차를 생략하는 등 취업절차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자리에서 약속하였다.

또 자원봉사자 왕수이(중국) 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고민을 토로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던 황교안 장관은 “다문화가정 2세대들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법적, 교육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여성과가족부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가시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외국인 부모 또한 우리 사회에 마음을 열고 아이에게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한다”며 조언도 덧붙였다.

### 한국의 미래와 함께 할 주역들

오가는 이야기 속에 간담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참석자들의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장관님의 따뜻한 관심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한국에서 힘들 때가 많았는데 오늘 장관님의 격려가 많은 유학생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유학생 아티아(말레이시아) 씨는 밝은 얼굴로 참여 소감을 전했다. 한국은 외국인 인구 유입의 급증으로 짧은 시간에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그 중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와 국민과의 통합, 그리고 미래 주역인 다문화가정 2세의 성공적인 성장과 해외 우수 인재의 정착이 중요한 사회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나라의 귀중한 재원인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정 2세 누구나 차별 없이 탄탄한 교육을 받고,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시간이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한국의 미래가 보인다”는 황교안 장관의 마무리 말씀처럼 재한외국인과 함께 한국의 희망이, 꿈이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제3회 정부합동 고충상담 및 한마음걷기대회축제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세계인이 함께 걷다



지난 10월 13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제3회 한마음걷기축제(이하 걷기축제)'가 열렸다.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돕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받았으며, 그 인원만 3,0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뜨거운 참가열을 보였다.

이날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과 김형오 前 국회의장, 이수성 前 총리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걷기축제는 재한외국인을 대상으로 고충상담, 건강캠프, 법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진정으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The Third Government Counseling Service and Together Walk Festival  
The World's citizens walking together for a healthy society

On Oct. 13, 'The 3rd Together Walk Festiva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walking festival) took place at the Sangam World Cup Park, hosted by the Campaign Office for Healthy Society and sponso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festival was planned with the purpose to raise society's understanding and interest for the foreigners living in Korea such as marriage immigrants, study-abroad students, foreign laborers, etc., and to help create a healthy society for all.

Interest in the event was heated, with around 3,000 persons participating in the festival. Civil officers attended to provide various services including counseling, health camp, and legal counseling for foreigners living in Korea.

전체 외국인 작년 동기 4.7% 증가, 805만 명 입국  
일본 비켜! 중국인 입국자 300만 돌파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입국한 중국인이 308만 5,232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입국한 273만 1,121명을 크게 넘었으며, 일본을 처음으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입국자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법무부가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중국인 입국자가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와 출입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Number of Foreigners Increase 4.7% from Last Year, with a Total of Over 8 Million Entries!  
Chinese visitors exceed Japanese visitors with over 3 million visitors

The Ministry of Justice stated that the number of Chinese visitors entering Korea this year (between Jan.-Sept.) hit 3,085,232, a significant increase from last year's figure of 2,731,121 entries. For the first time, China exceeded Japan as the highest-number of entries into Korea.

Such increase in Chinese visitors is traced to various policy changes made by the Ministry of Justice to attract Chinese tourists, such as: no-visa entry for transfer tourists, simplified immigration for cruise tourists, expanding the scope of eligible persons for multiple-visa or electronic visa, simplifying visa issuance procedures with diplomatic missions overseas, etc.. The Ministry of Justice expects the number of Chinese visitors to reach 4 million by the end of 2013 and is intending to improve the visa system and immigration procedures to help attract more Chinese visitors.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약체 구성 발족  
갈등 해결의 지름길은 대화!

법무부(장관 황교안)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1월 15일 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제2차 주민대표 접촉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주민협약체(이하 '주민협약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합의하였다. 주민협약체 구성은 법무부와 영종도 주민 대표 각 7명 외 양측 대표, 간사를 두어 협의의 균형을 맞추었으며 향후 지원센터의 정상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로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이번에 발족된 주민협약체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지원센터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불안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IRC) Launches Consultative Group  
Conversation, the optimal way towards resolution

On Nov. 15, 2013,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Hwang Kyo Ahn) came into second contact with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at the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Yeongjong-do, Incheon). The two parties agreed to the composition and management of a 'Immigration Reception Center Consultative Group'. The group is to be composed of 7 representatives from each side (the Ministry of Justice and Yongjong-do resident representatives), one representative from each side, and a secretary to create balance. The Ministry of Justice continued to make opportunities for open discussion, and on Oct. 18, the Ministry of Justice first suggested the creation of the group to the residents' side to help achieve the normal operations of the IRC.

영종국제 어린이로스쿨 제1기 과정 운영  
귀에 쏙 들어오는 즐거운 법 공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10월 22일 인천영종도에 있는 영종도 서관에서 '영종 국제 어린이 로스쿨'을 개강하였다. 영종도 거주 초등학생(3~4학년) 30명으로 제1기 과정이 개강되었으며, 영종도 소재 인천시립 '영종도서관'에서

관'에서 매주 화요일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검사, 변호사 특채 사무관, 공익법무관 등)의 재능기부로 진행된 본 강의는 헌법, 인권,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생활법률, 세계 법과 사회, 기관 견학 등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다 친숙하게 법의 세계에 입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Youngjong International Children's Law School Begins its First Class  
Learning the law the fun way!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launched the Youngjong International Children's Law school on Oct. 22. The first class of the program had 30 students (grades 3-4) residing in Youngjong-do participating. The class was held every Tuesday at the Youngjong Public Library of Incheon located on Youngjong-do, for a total of 5 classes.

The classes were possible thanks to the efforts of various KIS staff (prosecutors, deputy directors of lawyer backgrounds, public-service judge advocates, etc.), who volunteered to share their talent with the students on the subjects of: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practical law, law and society in various countries, and field visits. The program helped students approach law in an easy and fun manner.

홍콩입경처 자동 출입국심사 서비스 개시  
홍콩 방문 때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하세요

12월 12일부터 한-홍콩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홍콩 공항을이용 할 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다. 한-홍콩간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는 17세 이상 국내 자동출입국심사(SES)에 등록되어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2월 이후 홍콩 입경사무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SES 등록여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별도의 수수료 없이 바로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7월 30일 홍콩입경처와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양 이민당국은 11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였다.

Mutual Use e-Gates Initiated with Hong Kong  
Experience the convenience when entering Hong Kong!

The mutual use of e-gates with Hong Kong and Korea began on Dec. 12, 2013. Korean nationals may now enter Hong Kong via its e-channel



for faster and easier immigration service. Korean nationals—age 17 and above—who are already registered for the domestic Smart Entry Service (SES) program may apply for the service. Applications are filed online on Hong Kong's e-channel website beginning December 2013, along with SES registration confirmation for free of charge.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conclud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Hong Kong Immigration Department on the mutual use of e-gates this past July. Following system trial in November, the two parties initiated operation in December.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학생 자원봉사자 만남  
민원 해결의 답을 찾아 정책현장으로!**



지난 11월 22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민원 신청 및 처리과정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강조하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실한 업무 자세를 당부하였다. 이후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현장 가까이에서 듣기 인하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출신 '한우리봉사단' 자원봉사자들과 스탠딩 형식의 이색 간담회를 주최하였다.

**The Minister of Justice Meets with Foreign Students  
Volunteering for Public Service  
Addressing civil concerns directly in the  
field setting**

On November 22, Minister of Justice Hwang Kyo Ahn visited the Incheon Immigration Office to receive a duty report on the processing of civilian applications. Visiting the application window counters

himself, Minister Hwang carried out a thorough inspection of civilian application procedures and processing.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civilian convenience, Minister Hwang made an earnest request to the staff to provide warm civil service with a diligent attitude. Minister Hwang then held a meeting with foreigners living in Korea in a unique standing format to reach out to them in a closer setting. Participants included foreign students at Inha University and 'Hanuri' public volunteers composed of marriage immigrants.

**출입국 송년음악회 성황리에 마쳐  
재한외국인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개최**



서울 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신영호)는 지난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홀에서 결혼이민자와 재한외국인, 지역 주민, 출입국공무원이 함께하는 '재한외국인과 함께하는 송년 음악회'를 개최했다. 서울출입국 사회통합위원회와 (재)한국이민재단, (사)동포교육지원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결혼이민자와 재한 외국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그맨 김일희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기가수 현진우, 김민아, 플래쉬(걸그룹) 및 출입국 공무원으로 이뤄진 '조인밴드'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또한, 현장에서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성금은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 이재민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KIS Year-End Concert Ends with Great Success  
End-of-the-year concert together with  
foreigners in Korea**

On December 19, Head of Seoul Southern Immigration Office Shin Young-hyo hosted a 'Year-End Concert with Foreigners in Korea' with marriage immigrants, foreigners in Korea, local residents, and KIS staff

at the Haenuri Hall of Yangcheon-gu, Seoul. The concert, sponsored by the Immigrant Integration Commission of Seoul Immigration Off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Foundation, and Compatriot Instruction Support Service, had more than 200 persons in attendance. Led by Comedian Kim Ilhee as the MC, the concert presented various performances by pop singers Hyun Jinwoo, Kim Minah, Flash (girl group), and a special performance by Join Band, composed of KIS staff. All collections fundraised at the event will be donated to support the victims of typhoon Haiyan in the Philippines.

**일자리창출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 본격 시행  
사회공헌기업 출입국우대카드 발급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2월 23일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입국우대카드(Immigration Priority Card)를 발급한다. 이에 따라 카드소지자는 전국 공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법무부는 기존 6개 기관별로 발급되던 우대 카드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사회공헌자 우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Preferential Legal Administration for Social  
Contribution Members' Now Underway  
Immigration Priority Card now issued for  
businesses contributing to society**

Beginning Dec. 23 2013, Korea Immigration Service of the Minister of Justice will issue Immigration Priority Cards for social contribution businesses recognized for their contribution in national development via creation of jobs, victim support, family-friendly management, and shared growth. Cardholders may access exclusive immigration service desks at ports of entry nationwide and have access to the gates designated for crewmembers, etc. With this policy, the Ministry of Justice unified the priority card system originally issued separately via six departments. This makes management more effective and systematic than before while increasing the public awareness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the socially contributive.

**K.I.S.Information**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 제공**

지금까지는 외국인이나 고용주가 외국인의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법취업, 불법고용을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확인방법 안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접속 후 로그인 → 메인 화면 하단 오른쪽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배너 클릭 → 외국인 등록번호와 등록종류 발급일자 입력

**Confirmation Service Now Available for  
Foreigner Employment**

Up until now, both foreigners and employers (intending to employ foreigners) failed to check for employment status, resulting in numerous illegal employments of foreigners. To address this issue,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the 'Employment Eligibility Check' service online, starting Dec. 20, 2013. The service confirms whether the relevant foreigner is legally permitted to work in Korea. **To use the service** Log-on to HiKorea (www.hikorea.go.kr) → Click the 'Employment Eligibility Check' banner on the lower-right corner on the main page → Enter the foreigner registration number and registration card info.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이전 안내**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전화 062-381-0312  
처리업무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근무처변경 추가, 외국인등록 등 일반 체류업무, 조사, 재외동포 거소신고,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

**Newly Located Immigration Office**

Address 22, 911beon-gil, Sangmu-daero, Seo-gu, Gwangju  
Tel. 062-381-0312  
Affairs processed extension of stay, change to status of stay, addition of workplace, foreigner registration, general immigration affairs, investigation, domestic residence report for overseas Koreans, issuance of various certificates



# Q&A



**Q** 얼마 전 귀화접수를 하고 현재 귀화 필기시험을 공부 중인데, 몇 문항이 나오는지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화 필기시험은 객관식 20문항으로, 각 문항 배점은 5점씩입니다. 합격자 결정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입니다. 출제 경향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한민국 역사·정치·문화·국어 등 기본소양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합격(불참 포함)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기회를 1회 더 부여합니다. 시험문제는 비공개이지만 예시로 40문항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정보마당-국적/귀화)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Having filed for naturalization recently, I am currently preparing for the written naturalization examination. How many questions are there in total and what types of questions are asked?

**A** The written naturalization examination consists of 20 multiple-choice questions, with each question weighing 5 points. Of the total of 100 points, 60 points is the minimum passing score. The examination targets a basic grounding on Korea including history, politics, culture, language, etc. Question level is equal to those asked at the curricular level of grades 4-6. Those who fail to pass at the first trial (including those who fail to attend) are given one retrial opportunity. While the questions are not open to the public, forty practice questions are available on the HiKorea website (www.hikorea.go.kr-정보마당-국적/귀화).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sult the 1345 immigration hotline service.

**Q** 베트남여성과 결혼한 한국인인데 말이 통하지 않아 결혼생활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들어보니 법무부에서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신청해야 하는가요?

**A** 법무부는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및 교재비는 모두 무료입니다. 합법 체류외국인(거소신고자 포함) 및 귀화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하시는 분은 먼저 온라인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참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사전평가(레벨테스트)를 거쳐 참여자의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를 배정받은 후에 법무부에서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전화 1345) 또는 관할구역 출입국관리사무소(사회통합팀)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Q** I am a Korean national married to a Vietnamese woman. Our marital life faces great difficulty due to our language barrier. I hear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holds Korean language programs for free. How can I make the application for my wife?

**A** The Ministry of Justice carries out social integration programs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understanding programs) to help immigrants adjust to our society and help gain economic independence. The entire cost (covering program and text materials) is free. All foreigners in legal sojourn (including those registered for domestic residence) and citizens naturalized for three years or less may apply.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must first register and log-in at the program website (www.socinet.go.kr). Once application is made online, a level test will be carried out to designate the applicant's appropriate instruction level.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designate the instructing institution.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program website or call the immigration hotline (1345). Information is also available at the immigration integration division at your jurisdictional immigration office.

## 제게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김경선 사회복지사님께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냄새와 향기는 제가 살던 곳과는 너무나도 달라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츰 한국말과 문화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한국을 나의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나

사회복지사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꿈과 희망을 새롭게 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 다문화가정을 돕고, 다문화 인식개선 활동가로 활동하면서

인형극 단장을 맡게 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엄마로 만들어 줘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경선 사회복지사님은 저의 친구이자 지지자가 되어주셨고,

복지사님의 관심과 도움 속에서 저의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풍만해졌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더 성실하게 활동하는 모습으로 보답할게요.

제가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

제 주변의 모든 분들과 김경선 사회복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2013년 12월 9일 복지사님을 존경하는 외국인 친구로부터

